

韓國建築史研究 30年：先史～高麗

韓 再 洙

〈目 次〉

- I. 머리말
- II. 時代別 研究推移와 成果
 - 1. 구석기시대의 건축
 - 2. 중석기시대의 건축
 - 3. 신석기시대의 건축
 - 4. 청동기시대의 건축
 - 5. 초기철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의 건축
 - 6. 삼국시대의 건축
 - 7. 통일신라시대의 건축
 - 8. 발해시대의 건축
 - 9. 고려시대 건축
 - 10. 한국건축사학의 흐름
- III. 韓國建築史學의 理論的 基礎
 - 1. 實證史學의 課題
 - 2. 樣式史의 課題
- IV. 結論

I. 머리말

대체로 韓國의 近代의 學問은 1894年 甲午更張을 기점으로 그 이후 서서히 형성된 近代意識에 관한 자각과 다양한 外來思潮의 전래에 의하여 점차 싹트기 시작했다. 韓國建築史學에 관한 研究의 뿌리도 이와같은 近代의 學問의 발아속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國運이 기울었던 韓末과 다른 民族의 압제를 감내해야 했던 光復이전의 時代的 여건을 감안해 볼 때 古典의인 固有建築文化속에서 主體的 建築文化를 찾고자 했던 時代意識은 다른 어느 분야의 학문에 있어서와도 같이 建築系에 있어서도 일부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로서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韓國近代史가 지니는 시대적 단층은 건축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韓國建築史에 관한 研究史가 줄잡아 백여년에 가까운 연륜을 헤아리게 되지마는 실제로 한국인학자들의 손에 의하여 정리되기 시작한 것은 40여년에 불과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建築史學에 關한 研究는 近代學問을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역경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는 발전을 지속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韓國建築의 傳統性에 關한 研究의 기본 테제로서 韓國建築學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學問的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1985년 이전까지 이루어져 온 韓國建築史學史를 敘述하고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보다 발전된 研究方法論과 成果를 기대하는 반추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같은 작업은 다른 分野學問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研究史로서 기술하는 데에는 해결되어져야 할 많은 난점들이 수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연구업적들에 관한 체계적인 記述上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곧 韓國建築史學史의 흐름을 어떠한 시각에서 조명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과연 한국건축사학의 전통성을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본원적인 의문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건축사 敍述체계가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두가지 문제로부터 파생되어진다고 본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1985년 이전까지 이루어져 온 연구성과에 대하여 시대별로 나누어 敍述해 보고자 한다.

Ⅱ. 時代別 研究推移와 成果

1. 구석기시대의 건축

구석기시대에 관한 보고가 日人의 손에 의해 1935년 함북 중성군 동관진 유적발굴로 그 모습을 드러낸 이래 본격적으로 학계에 관심사가 되게 된 것은 함북 웅기 굴포리의 후기 구석기시대 유물 포함층조사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공주 석장리 유적조사가 연세대학 손보기교수팀에 의하여 이루어진 1962년, 64년부터였으며 이방면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어진 것은 7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구석기시대에 관한 연구는 한민족이 한일합방기를 통해 받아들인 식민사관과 이를 학문적으로 역이용해 왔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광복이후까지 어느정도 지속되어 왔던 학문적 예측성으로 구석기시대에 관한 인식과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후 이루어져 온 이들의 연구성과는 한국사의 始源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발굴된 구석기시대 유적중에서 建築史연구에 중대한 자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공주 석장리와 제천 점말용굴을 비롯한 공주 마암리동굴·제주도 빌레못동굴·청원 두루봉동굴·샘골·연천 전곡리 등지와 상원 검은모루동굴·청정암동굴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이한 사실이 발견된 것은 연세대학의 손보기교수팀에 의하여 1964년부터 발굴조사된 공주 석장리유적이었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지닌 건축사적 의미는 考古學의 평가를 제쳐 놓는다 할지라도 여느 유적과는 달리 기둥의 흔적과 불탄 자리를 가진 5m²의 주거지였다는 사실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속에서 발견된 목탄의 탄소연대측정결과 후기 구석기에 속하는 20830 B.P라는 편년기준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최초의 축조된 주거의 형태가 알려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구석기시대 건축에 대한 이해가 막연히 자연동굴을 의지해서 살았을 것이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짓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한국건축사 기원에 대한 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구석기시대 건축사연구는 고고학적인 연구성과와 더불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중기·후기로 나누어 연구되고 정리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 시기에 관한 기초 조사활동에도 건축사학자의 참여의 필요성이 성숙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2. 중석기시대의 건축

중석기문화에 대해서 고고학계에서는 구석기시대의 계속이면서 신석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보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흔적이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유보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에서 중석기문화유적이 발견되어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만강하류에서 발견된 토기편들의 성분내용이 중석기시대에 해당되는 것들이 적지 않았던 점을 들어 고고학계에서는 이 시기의 존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때문에 이 시기에 관한 연구는 우선 考古學界의 학술적 연구성과를 기대해 볼 필요가 크다고 생각된다.

3. 신석기시대의 건축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조사는 일제시대 이미 함북 웅기패총밑에서 발견되어 학계에 알려진 바 있었으나 구체적인 보고서가 제출정리된 적은 없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유적조사는 광복이후 이루어졌으며 발굴된 유적·유물은 한반도 여러지방에서 적지않게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사된 遺跡數에 비하여 주거지가 발견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나마 발굴된 주거지의 거의 모두가 북한에서 50년대 60년대에 발견된 것들이고 남한에서 조사된 것은 70년대 조사된 암사동유적이 처음이므로 유적에 대한 남북한 학자들의 시대편년상의 견해차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정리가 매우 시급한 입장에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신석기전기(BC 5000~BC 3000)에 해당하는 주거지가 발견된 것은 1950년 평남 온천군 공산리패총과 1957년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 주거지를 들 수 있다.

신석기 중기(BC 3000~BC 2000)에 해당되는 주거지로써는 1955년 발굴조사된 금탑리유적과 1956년 농포리패총을 들 수 있고 71~74년 발굴된 암사동주거유적을 생각할 수 있다.

신석기 후기(BC 2000~BC 600)의 것은 대부분 60년대와 70년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던 것들로서, 60년대 이루어진 것은 1960년 평북 중강군 토성리, 장성리유적, 용당동 패총을 들 수 있으며 1962, 1963년도에 발견된 평북 영변 세죽리유적, 1964, 1965년도에 조사된 평북 용천군 신암리유적 등을 들 수 있고 70년대엔, 용연리유적(1972년발굴), 암사동유적(71~74년발굴), 남경유적(79년발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에서도 암사동의 것은 방사성 탄소측정결과 (4950±200 B.P), (3430±250 B.P)가 나왔으므로 가장 확실한 연대로 평가되고 있다. 주거지 이외에도 건축사 연구대상

이 되고 있는 신석기시대의 墓制가 지금까지 발굴된 것이 불과 몇개 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해를 기대하긴 매우 어려운 단계이다.

그러나 타원형 토광위에 할석을 쌓아올린 矢島패총(2870±60 B.P, BC 10C)의 적석형태구조와 춘천 교동의 인조원형동굴은 매우 시사적인 건축유구라 생각된다.

4. 청동기시대의 건축

청동기시대 건축유적은 해방이후 가장 논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서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유구를 주거지, 묘제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전자의 유적들은 대부분 南韓에서는 주로 한강유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北韓에서는 압록강, 대동강 연안과 이 하천을 낀 평야에 많이 分布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주거지는 의주 미송리 동굴주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혈주거지로서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해도 백여개가 넘고 있으며 이중 적지 않은 주거지가 집단 부락을 크게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南北韓 학자들이 시대편년상의 견해차가 무려 1000여년이나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시대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를 시대사와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건축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김정기의 연구가 처음이며 많은 연구 업적을 쌓아 놓았으나 시대적 특성상 체계화하기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묘제인 경우 이시기의 것에 해당하는 것은 支石墓, 石棺墓, 積石塚, 土壙墓, 甕棺墓 등 실로 다양하지만 정작 철기시대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들을 확연히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지금까지 발굴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방사선 탄소연대를 살펴 보면 麗州欣岩里 12號주거지의 경우 BC 13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나, 대부분 BC 10세기전후에서 BC 3~4세기에 걸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주거지 발굴 내용을 연대별로 보면 북한에서는 50년대 후반부터 조사되어 졌으나 남한에선 그보다 조금 늦게 60년대 초엽부터 본격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60年代 住居地관계 보고서는 金廷鶴의 「廣州 明逸里 住居址 發掘報告(古文化1, 1962)」, 「廣州 司樂里 先史住居址 發掘報告(古文化2, 1963)」, 尹武炳의 「天安 斗井里의 竪穴住居址(美術資料 8, 1963)」, 金元龍의 「水石里 先史時代 聚落住居址 調查報告(美術資料11, 1966)」등을 위시한 많은 조사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先史時代 建築史를 연구하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해 왔으며, 1963년에는 家型토기가 발굴됨으로써 이 시대 주거사 연구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靑銅器時代 건축사에 관한 연구는 60년대 초반에 비교적 사료의 量的 폭과 깊이를 지니게 됨으로써 사실상 청동기시대 건축사에 관한 접근의 토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60년대 후반기에 이루어진 제반조사 가운데에서도 建築史學의 가치가 컸다고 보아지는 것은 金元龍에 의한 「風納里 包含層 調查報告(1967)」와 金正基에 의해 忠南 瑞山郡 海美에서 발굴되어진

수혈주거지에 관한 조사를 들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유물포함층에서 철편과 꺾쇠가 발견됨으로써 선사시대 목조건축의 기술사적 일면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후자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형식임을 발견함으로써 청동기시대 건축사연구의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같은 선사시대 住居址(특히 靑銅器)에 대한 활발한 조사연구는 연륜이 짧았음으로 조사의 폭과 量이 체계적 연구에 충분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것이 지닌 史學史上 의미는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以前까지는 日政時 日人들에 의하여 靑銅器유적이 다소 발견되기는 했으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들의 식민사관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부정되어온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건축이 지니는 建築史的 意味를 建築은 社會相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청동기시대는 技術史的으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이 도구로 쓰인 시기이지만 建築史的 측면에서 볼 때 都市의 發生, 支配階級の 形成에 따른 樣式化된 건축형식의 가능성과 文字의 使用에 의한 體系的인 建築術의 존재여부들은 靑銅器時代 建築史研究의 주요관점이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시기와 겹쳐 나타나고 있는 초기 철기시대 주거유적은 원삼국시대 건축사와 적지 않은 연관을 갖고 있음으로 史學史上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시기에 발견된 유적유물을 종합해 보면 이와같은 여러 조건을 해석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건축사의 서술에 있어서 몇개의 條件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아니라, 시대설정 기준에 따라 開始와 終末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많은 자료의 축적을 시대적 과제로 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海美 休岩里(67~70), 石村洞 原三國時代의 家屋殘構(1971) 驪州 欣岩里(72~77), 扶餘 松菊里(75~78) 등의 중요한 유적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석촌동에서는 유물포함층에서 木皮 붙은 서까래들이 지붕의 원형을 가지고 발견되었으며 편년이 가능한 유물들이 인접지역에서 동시에 반출됨으로써 60年代에 B.C 5~6세기로 보았던 것을 70년대 와서는 B.C 7~10세기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특히 龍堤里系統과 大谷里系統의 지석묘의 유물군에서 발견되는 銅斧, 銅鈹, 동끝과 같은 공구류들은 당시 건축기술과 상당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군과 야철지에 대한 발굴은 城邑의 형성과 당시의 건설 경제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극소수에 해당하므로 연구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80년대 접어들면서 초기 철기시대 주거지 발굴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80년에서 81년까지 승전대 林炳泰에 의하여 진행된 水原 西屯洞住居址, 82년 국립박물관의 池健吉의 中島住居址, 同년 경희대 黃龍渾 提原廣儀里住居址, 83년 江陵大白弘基의 襄陽柯坪里住居址, 85년 국립박물관 池健吉의 扶餘草村面松菊里 청동기시대주거지 등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도 괄목한 만한 발견을 든다면 中島住居址에서 발견된 철제 鐵鏃, 刀子, 낫, 끌 등의 공구류의 출토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한강유역의 원삼국시대의 건축기술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충남 부여군 草村面 松菊里 청동기시대 움집에서 발견된 서까래 8개는 4개씩 양쪽으로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다. 청동기시대 건축유구가 원형 그대로 발견됨으로써 움집의 건축형식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5. 초기철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의 건축

현재까지 알려진 철기시대 유물분포를 살펴 보면 압록강, 청천강유역, 대동강유역,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해남군의 郡谷里패총,新安군의 菴子島패총 전라북도의 만경강유역, 경상북도의 대구 달성공원, 경주월성 등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유형별로 보면 주거지, 패총, 분묘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住居址

지금까지 발굴된 주거지를 연대순으로 살펴 보면 60년대는 1960년에 보고된 회령군 오동의 주거지(도유호, 회령오동원시유적보고, 1960)과 1964년 발굴된 영변 세죽리주거지(김영우, 세죽리유적발굴중간보고 2)를 들 수 있다.

70년대 발표된 것을 보면 71년 加平郡 馬場里 冶鐵住居址(김원용, 加平馬場里冶鐵住居址), 73년의 서울 강동구 石村洞家屋殘構(김원용, 石村洞發見原三國時代家屋殘構), 79년의 加平郡梨谷里住居址(최무장, 加平梨谷里鐵器時代住居址조사보고), 박천군단상리주거지(역사연구소)를 들 수 있다.

80년대의 성과를 살펴 보면 1982년에 있는 水原市 西屯洞주거지(박병태, 박물관신문), 1983년의 中原郡 荷川里주거지(윤용진, 충주범 수물지구 문화유적조사보고)와 平北 時中郡魯南里주거지(정찬영, 압록강·독로강유역 고구려유적발굴보고)를 들 수 있다.

2) 城址

이 시기에 해당되는 城址유적이 학계에 보고된 것은 대략 3件에 불과한데 1936년 조선고적연구회에서 조사한 평양 토성동 土城址(昭和十年年度古蹟調査概報)가 아마 처음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우리학계에서 조사된 것은 67년 풍납리 토성(김원용, 풍납리 포함총조사보고)와 1968년 대구 달성동 土城유적(윤용진, 대구달성성벽조사, 考古美術9-11)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며, 北韓에서 이루어진 것은 함경남도 金野郡 龍江面 土城址(박진욱, 함경남도일대의 고대유적 조사보고)였다고 생각된다.

3) 墓制

이 시기에 속하는 墓制로서는 支石墓, 地下土壙墓, 옹관, 토광묘 등을 들 수 있는데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墓制라 할 수 있는 토광묘인 경우 주로 平南 江西지방과 경주 구정리에서 발굴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옹관묘와 지석묘인 경우 영산강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초기철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의 건축사는 先史시대로부터 歷史時代로 접어들고 국가의 형성시기에 해당하는 만큼 문헌사료에 나타는 많은 기록과의 상관성을 놓고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인 경우, 이미 읍, 부락, 촌을 형성하였던 만큼, 집단주거 형태와 도시의 형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토성의 흔적과 지식묘들의 축조는 대규모 집단노동력의 동원이 요구되는 만큼 축조, 건축행위의 집단화 체계에 대한 어떤 조직체계가 통치구조안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石村洞에서 발견된 서까래 흔적과 당신의 공구류를 통해 볼 때 三國史記 초기기록에 나오는 건축유형이 양식화된 건축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줄 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발표된 논문을 살펴 보면 金正基의 古代建築에 있어서의 新建築技法導入에 關한 推論(진단학보, 46·47)과 韓再洙의 三國時代初期 營造記錄과 遺物史料와의 關係(한국건축사학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간의 발굴성과를 주거지 중심으로 체계적 정리를 시도한 강연수의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고구려 시대 궁궐인 국내성이나 백제의 위례성 그리고 신라의 월성 등에 관한 연구는 비록 유적의 발굴이 미비하고 위치의 정확한 고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문헌사료에 의한 새로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삼국시대의 건축

삼국이 정립되어 통일정책을 수행했던 시대였던 만큼, 국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궁궐건축과 많은 전쟁속에서 民戶를 방어하기 위했던 성곽, 그리고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담당했던 寺刹건축은 삼국시대 건축사의 중요한 단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많은 유적발굴 중에서도 삼국시대 주거유적의 발굴이 정확한 시대편년이 어려운 가형토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고 하는 점이다. 때문에 주거사연구에 있어서 삼국시대의 것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및 원삼국시대 이후로 고구려 고분벽화와 이북에서 발굴된 고구려시대 주거지, 삼국사기 옥사조에 몇몇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백제, 신라의 것은 사료적 공백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1) 궁궐건축

고구려 백제 신라의 古都가 학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日帝時代부터였으나 유적의 확인 답사에 불과했을 뿐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궁궐건축에 대한 연구는 매우 피상적인 것일 수 밖에 없었으나, 1967~70년 고구려의 안학궁터가 발굴됨으로써 배치형식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백제의 웅진시대 王宮址가 조사된 것은 79년 안승주(백제문화권의 문화유적)에서였고 부여시대의 것은 82년 충남대학 백제연구소에서 부여지구 유적조사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때 王宮址및 宮南址 宮井 등이 조사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는 80년 百濟研究에 실린 成周鐸의 百濟態津城과 泗泚城研究를 들 수 있다.

신라 경주에 관한 발굴은 거의 대부분이 고분에 대한 것들로서 왕궁의 유적이 구체적으로 다루

어진 것은 85년 문화재관리국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 의하여 발견된 月城垓字가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발굴조사내용으로 살펴 볼 때 대두되는 어려움은 옛古都가 시가지화되어 짐으로써 파괴가 심했고 현재 많은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유구 발굴이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상당부분을 문헌연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가지 대행스러운 것도 궁궐에 관한 연구가 60년대 이래 구체적인 유적 발굴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앞으로의 발굴성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불교건축

불교건축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내용은 寺址 이외에도 탑파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탑파에 관한 연구는 건축학계에서는 목조탑파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다루어져 왔으며 미술사학계에서도 조각사의 일부로 적지 않은 연구 업적과 관심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이한 관점에서의 접근은 사실상 불교건축연구에 있어서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연구성과가 이룩되어져 왔으며, 체계화 작업이 시도되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ㄱ) 탑파

탑파에 관한 연구는 1902년 한반도 내의 유물·유적을 조사한 關野貞(朝鮮建築調查報告, 1904)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그후 체계적인 시도가 행해진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34년 11월 구성된 진단학회 발기인 중 한 사람인 고유섭에 의하여 韓國塔婆의 研究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실로 여러 방면에서 지대하였지만 건축사학적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은 바로 목조탑파와 전탑에 대하여 문헌기록과 결부하여 詳論하였다고 하는 점과 한국 탑파의 양식변천을 정리했다고 하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후 1940년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불상과 함께 석탑이 조사된 바 있다. 광복이 되면서 6.25전란이 있었던 50년대엔 별 다른 연구업적을 찾아 볼 수 없으나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수기의 羅末麗初 석탑이 조사되어 학계에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부여 정림사지 석탑(홍사준, 부여정림사지 5층석탑, 고고미술 47·48, 1964)에 대한 실측조사가 진행되었고, 한국일보사 주관으로 진행된 新羅五岳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八公山地區에서 禪本庵 3층석탑 조사, 符仁寺 3층석탑 복원 등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 발견된 신라석탑은 용인 漁肥里와 제천 月岳里, 봉화 驚棲寺 및 양양 陳田寺址 3층석탑이다. 또한 이시기에 주목되는 학술적 업적은 황수영에 의하여 주장된 불국사 다보탑이 8각圓堂形浮屠의 祖型이라는 것을 들 수 있으며, 70년대 이르러서는 주로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이 다루어졌다.

80년대에는 백제탑에 관한 연구가 괄목할 만한데 정림사지 발굴결과 이 석탑이 건립연대가 6세기 전반으로 평가되어짐으로써 지금까지 정설로 되어 있던 7세기 전반의 익산미륵사석탑보다

앞선 것으로 발표됨으로써 백제석탑의 기원문제가 새로이 평가되게 되었다.

(ㄴ) 寺址

1960~1970년대 이루어진 寺址에 關한 조사는 考古美術同人會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보면 4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표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논문형식으로 정리되고 있으므로 官撰고적조사와는 그 형식에 있어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私撰史料가 建築史를 서술함에 있어서 적지않은 공헌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비교적 資料의 가치에 준하여 정리된 官撰史書類에 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寺址에 關한 조사는 64년에 國立中央博物館의 윤무병, 김정기, 한병삼, 이난영, 김동현에 의하여 이루어진 金剛寺—扶餘郡恩山面琴公里百濟寺址 發掘報告(1964)와 東國大博物館의 황수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臨江寺址에 關한 조사(1964), 文化財管理局에서 1966년 조사한 彌勒寺址, 황수영, 김동현) 68년에 조사된 九黃洞廢寺址, 69년에 들어서는 梨花女大博物館의 진홍섭이 조사한 皇龍寺址에 대한 조사와 文化財管理局에서 조사한 佛國寺, 公州師大 百濟文化研究所에서 조사한 西穴寺址에 關한 일련의 조사기록을 들 수 있다.

이때에 이루어진 寺址에 關한 조사는 주로 5세기 초엽부터 7세기 전반에 關한 것이 대부분이며 7세기 후반 즉 통일신라이후의 것은 그다지 활발한 편이 못되었다. 그중에서도 百濟寺址에 關한 조사가 적지않은 것은 이제까지 발굴조사 양상과는 달리 遺物도굴이 가장 심했던 고로 침체일로에 있었던 百濟史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이루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발굴조사에 建築史學者들이 점차 참여하게 됨으로써 一般 史學的 사실 이외에도 초석이나 유적의 樣式, 使用尺의 確認, 建物の 用途, 他建物과의 關係 등이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지게 됨으로써 建築史學研究의 史料的 기초를 형성하였다.

60년대말부터 이루어진 성과중에서도 우선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것 2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檀大 陳田寺址 發掘調査團이 6년동안 작업 끝에 이 유적이 한국禪宗의 宗祖인 道義國師에 의하여 新羅時代에 설악산에 세워진 禪宗 도량인 陳田寺址임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禪宗계통의 가람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황룡사지발굴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백제 工匠의 도래와 기술 연계로 미루어 古代신라사찰의 배치법식과 백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료가 정리된 셈이며 塔址에서 鎮壇址가 발견됨으로써 寺院建築때 행한 儀式연구의 자료가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신라 경주 시가지의 구획인 坊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寺址에서 발굴된 유물은 신라시대 건축사 복원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편년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백제의 寺址인 경우, 우선 74년부터 80년까지 6년간에 이루어진 익산 미륵사지발굴을 들 수 있다. 조사결과 三處伽藍의 型式(三塔, 三廊, 三殿, 三廡)으로 판명됨으로써 三國遺事 武王條에서 볼 수 있는 기록과 상합함으로써 史料的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韓日古代伽藍形式研究에 대표적 사료가 되고 있으며, 삼국시대 가람연구와 백제시대 건축기법 등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미륵사탑의 경우 백제, 신라, 두계통의 석탑 양식의 기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79~80년 간에 충남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여 定林寺址 발굴에서 단탑식의 가람배치와 최고의 인조 연못 유구가 확인됨으로써 백제초기 가람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한편 1969년부터 74년까지 실시된 불국사의 복원작업은 지하유구의 발굴조사와 함께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그리고 대웅전,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회랑 등이 신축되었다.

이 시대 가람형식에 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양식사 연구에 영향을 준 연구를 든다면 87년 6월부터 발표된 김성우의 일련의 작업, 동아시아 불사의 최초형식, 북위 영년사와 3국시대의 불사, 3급당 형식의 기원 등을 들 수 있다.

3) 城址

城址에 관한 연구조사는 70년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들에 관한 연구가 당시 邑治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歷史地理의 연구대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古代都市의 형성과정을 밝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城의 축조양식, 지형고찰, 문헌기록의 史蹟고찰, 출토유물의 건축연대추정 등에 관한 조사는 城廓연구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城廓의 연구는 특히 백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分布를 중심으로 볼때 都城을 중심으로 테피성을 쌓아 요충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大成과 大城사이에 테피성을 쌓는 등의 방법은 백제특유의 方法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築城術의 발달이 日本까지 전달 大野城 基律城에도 적지아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신라 南山新城碑가 발견조사됨으로써 당시 건축직제의 하부구조를 밝힐 수 있게 되었으며 동원된 인원의 직명, 출신지명, 인명, 관등이 기록됨으로써 건축제도사와 건설 경제사적 측면에서 김동욱에 의하여 다루어진 바 있다.

이와같이 볼때 城址에 관한 연구는 70년대 이르러 백제의 경우 전면적인 조사가 앞서고 있었으며 신라의 경우 부분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말았으므로 都市史의 검토가 아쉽게 남아있다.

80년대 이루어진 城址에 관한 조사는 백제의 부여, 공주 등지의 성곽에 관한 조사와 군창터에 대한 발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84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夢村土城과 83年 公山城의 경우 공주사대에 의하여 종합보고의 형식을 이룬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城址의 경우 중원지역의 경우 많이 있었으며 84년 경주시 仁旺洞에서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 의해서 발굴된 月城垓字는 당시 월성의 자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 垓字 발굴시 발굴된 암막새기와중 경주지역에서 처음 출토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형식의 기와는 일본의 奈良지역 유적의 8C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문화비교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4) 주거지

삼국시대 주거지에 관한 연구는 고구려시대에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사료는 우선 고구려 벽화고분에 나오는 그림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실제로 주거유적이 발굴

되어 왔다.

우선 전자의 경우 1969년 발표된 김정기(고구려벽화 고분에서 보는 목조건물)와 김원용의 신라 가형토기 연구를 꼽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2호집자리, 평남 북창군 대평리집자리, 길림성 집안현 동대자집자리, 평양시 력포구역 무진리 정릉사터집자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집자리에서 구들의 흔적이 발굴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층별로 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5) 와당

와당에 관한 연구는 이미 광복이전에 일본인의 손에 의하여 상당수가 수집정리되어진 바 있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연구는 關野貞의 朝鮮의瓦文樣(建築世界 16卷三號—第17卷七號), 梅原末治의 新羅古瓦譜(大正15年 11月), 石田茂作의 古瓦圖鑑(昭和五年 10月) 등을 들 수 있다.

광복이후의 연구로서 60년대 考古美術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60년대 초반에는 洪思俊(百濟의 有紋女瓦, 1961. 2月), 秦弘燮(四天王像甃磚의 一例, 1961.3), 全永培(公州公山城出土數磚과 文字瓦, 1962), 孟仁在(獸面甃, 1962)와 感恩寺址鬼面瓦 新羅鬼面瓦의 新例, 김정기(異型瓦堂二例, 1965), 장남식(경주출토 蓮花鬼面의 新例, 1965) 등을 들 수 있다.

6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주로 백제와당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 박용진에 의한 공주출토의 瓦當에 관한 연구(공주교대논문집, 1967), 백제와당에 관한 연구(공주교대논문집, 1968)를 들 수 있으며 그는 1976년 百濟瓦當의 體系的 分類(백제문화 6)를 시도하게 된다. 김동현 등에 의하여 新羅의 기와가 한국문화사V에서 정리된 것은 1976년 5월이었으며 77년에는 박용진에 의하여 고구려 계통의 백제와당이 정리되었다(고구려계 백제와당—숫막새기와를 中心으로, 진북사학 1집).

7. 통일신라시대의 건축

통일신라시대 건축에 대한 연구로서 하나 둘 概觀的인 것은 있으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심화된 연구성과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것은 이 시기의 건축유적과 유물이 많지 아니하고 遊離資料가 대부분이라는 데서 오는 연구의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이지만 많은 전란과 증축, 개축 등에 의한 건물지의 변형은 시대고증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 궁궐건축

통일신라의 궁궐건축 내용에 대해서 일제시대 발굴조사된 바 있는 성동리유적을 생각할 수 있으며 문헌자료로서는 삼국사기의 기록 내용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각 전각의 이름이 수록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유적의 부족으로 신라의 왕궁은 그 위치를 정확히 추정해 내지 못한 실정에 있다.

그러한 가운데 학계의 커다란 수확이 있었던 것은 1975년 76년의 2년동안 이루어진 안압지에 대한 발굴조사였다. 그 결과 전으로 깔은 鋪道와 5개의 정자위치와 규모가 밝혀졌으며 목조건물에 사용되었던 각종 장식기와 공포부재, 서까래끝에 달았던 부연과 평교대와 마구리 금속장식 문고리 장식 등 당시 목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가 발굴되었다.

안압지의 발굴에 뒤이어 79년과 80년에 월성 동북측에 있는 동문지와 해자가 발굴된 바 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1984년 장경호가 통일신라시대의 궁전건축을 정리한 바 있으며(고고미술 162·163), 목조건축양식에 관해선 김동현(고고미술 162·163)이 정리한 바 있다.

2) 佛敎建築

(ㄱ) 寺址

통일신라 寺址로서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유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여개가 넘고 있으나 이중에서도 중요유구를 남겨 놓고 있는 사찰은 16개정도인데 대부분이 석탑, 당간지주, 석등 등이 남아있고, 초석의 위치가 또렷하고 분명하게 조사 발굴할 수 있었던 寺址는 불과 일곱 군데 정도 밖에 안된다.

우선 일제시대때 조사된 것을 살펴 보면 1929년 지표조사된 경주 未方里寺址(불국사와 유사한 연대의 것으로 추정됨)를 들 수 있으며 불국사와 석굴암이 조사된 것은 1938년이였다. 광복이후의 것으로는 1958~59년, 79~80년 발굴 조사된 感恩寺址를 들 수 있다. 이 때 金堂址의 특수구조가 발견됨으로써 三國遺事의 萬波息笛條에 나오는 기록과 유적이 일치함을 알게 되었으며, 西三層石塔이 해체보수될 때 건립당시 施納한 사리기가 발견됨으로써 外來文化와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60년대의 조사로 들 수 있는 것은 65년 진흥섭에 의해 발표된 甘山寺址와 崇福寺址(考古美術, 1965. 5)를 들 수 있으며 불국사가 중건된 것은 72년에 이루어졌다.

(ㄴ) 塔과

탑과에 관한 연구는 50년대 후반, 桐華寺金堂庵3층석탑, 松林寺5층전탑이 발견됨으로써 사리탑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졌으며 발굴조사의 관심이 경주 중심에서 벗어나 60년대 이르러서는 사천왕사와 망덕사의 탑지가 목탑지였음이 밝혀짐으로써 학계의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朱南哲의 木造塔婆의 研究(고고미술 158·159, 1983. 9.)를 들 수 있다.

60년대에 이르러서는 62년 석굴암의 보수공사가 있었고 63년에는 軍威郡에서 본격적인 자연 석굴이 발견되었다. 66년에는 불국사 3층석탑에서 목판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60년대 사료발굴 중심에 치우쳤던 것과는 달리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체계적인 작업이 눈에 띄게 진행되었다.

3) 주거지

통일신라시대 주거지에 관한 연구는 유적발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가 문헌사료인 삼국사기 옥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0년대 후반의 주남철의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연구(건축, 대한건축학회, No 19)

와 문헌연구로는 申榮勳의 삼국사기에 보이는 屋舍條와 民家(史學志3, 1969.7)과 84년 9월 신라 통일기의 屋舍建築(고고미술 162·163)을 들 수 있으며 1987년 朱南哲에 의해 발표된 삼국사기옥사조의 신연구(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Ⅱ, 一志社)를 들 수 있다.

8. 발해시대의 건축

발해사는 삼국유사에서 정통왕조로 인정된 이래 유득공·정약용·신채호 등에 의하여 한국사의 일부로 재조명되었으나 조선의 봉건사학자들과 일제의 식민사관으로 왜곡 축소 말살되어 왔다. 이러한 史學界의 현실로 인하여 건축사의 연구분야에서도 발해의 건축에 대한 언급은 실로 외면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연변대학이나 북한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이들이 조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발해시대의 건축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어느시대의 건축사연구 못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성곽, 와당, 궁궐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우선 성곽에 대한 조사 보고는 琿春古城考(魏聲翕, 東北叢刊 15, 1931. 3), 古城遺址—介紹渤海國上京龍泉府(黑龍江日報, 1961. 5. 21), 渤海舊京城址調查(單應麟, 考古, 1960. 4), 渤海都城上京龍泉府故址(景受, 光明日報, 1979. 1. 10), 東寧縣大城子調查記(文物參考資料4, 1981), 渤海城址의 發見與分期(魏存成, 東北考古與歷史 1. 1982) 등을 들 수 있다.

궁성에 관해선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에 의하여, 85년이래 87년까지 궁궐의 동서랑무유지, 궁성제 2, 3, 4문지, 궁성內房址 등이 발굴되었다.

와당에 관해선 唐代渤海文字瓦拓片(흑룡강신문물총간, 1983. 4)이래 흑룡강성문물고고연구소에 의하여 渤海磚瓦黨址발굴보고(北方文物, 1986. 2)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발해유적에 관한 조사는 주로 上京龍泉府와 宮城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연구성과를 종합해 볼 때 발해시대의 건축사는 그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 고려시대 건축

高麗時代의 건축이 三國時代나 統一新羅와 마찬가지로 佛敎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시대 못지 않게 문화적 특성과 활동이 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時代의 建築史研究가 제일 부진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려움은 기초 사료인 대부분의 유적이 開城에 모여 있기 때문에 분단의 현실을 놓고 볼때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 궁궐건축

고려의 궁궐지에 대한 조사는 일제시대부터 關野貞의 朝鮮の建築と藝術에서 滿月臺에 관한 유적이 소개된 바 있다. 그 후 고유섭에 의하여 松都의 古蹟에서 開城시내에 산재해 있는 유적들이 하나 하나 소개된 바 있었으나 구체적인 발굴, 복원작업이 시작된 것은 1953년에 있었으며 73~74년 사이에 진행된 발굴작업을 통하여 만월대 서북 건축군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려시대 왕궁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만월대를 소개하는 정도 이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만월대가 고려시대의 正宮인 것처럼 생각케 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만월대에 속해 있는 전각은 회경전과 장화전인데 이에 관한 내용을 高麗圖經과 東國輿地勝覽 松京地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 王府內城環列十三門, 各揭名額隨方見義, 惟廣化門正東通長衢 殿門十五, ……會慶爲正寢三閣 (高麗圖經 卷五, 宮殿)
- 在松岳山下術家謂明堂之地其正殿曰乾德 宮或稱大觀 南門曰廣化 (東國輿地勝覽 卷五, 開城府下)
- 大觀殿本乾德殿仁宗改今名在延慶宮 (文獻備考 卷37, 輿地考)
- 在松岳下其正殿曰乾德宮或稱大觀 (松京志, 卷七)

이상과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고려도경에서는 회경전이 正寢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사료에는 회경전 북서에 있는 건덕전을 정침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文獻備考卷37 輿地考에서 “滿月臺, 在延慶宮即正殿前階”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會慶殿之西北에 있는 乾德殿의 前階가 만월대가 되며 이것을 포함한 正宮은 연경궁인 것이다.

바로 이와같은 사실은 고려시대 궁궐건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헌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2) 佛教建築

고유섭의 송도의 고적에서 고려시대 寺址가 소개된 이래 광복이후 최초로 발굴작업이 시작된 것은 文宗때 영건되었던 興王寺址에 대한 조사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초기의 노력은 차츰 自生的 발굴의 터전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고려시대 건축사연구의 기초가 되지 못하고 6·25전란으로 인하여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진 寺址의 조사는 瑩源寺址(윤용진, 1963, 고고미술), 鎭川 연곡리사지(이은창, 고고미술, 1964), 봉화太子寺址(진홍섭, 고고미술, 1965), 서산 普願寺址(이은창, 1966, 고고미술) 등이 발견되고 석탑과 부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오던 고려시대 사찰건축은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萬福寺址(1979~1980), 金生寺址(1977), 中原彌勒院址(1977) 등이 발견됨으로써 고려시대 불교건축사연구에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목조건물의 보수로서 봉정사 극락전을 들 수 있는데 이 건물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더불어

선후를 다투는 한국 최고의 건물로 간주되어 오다가 1973년 해체수리때 1368년 屋蓋를 수리하였다는 墨書銘이 발견됨으로써 무량수전보다 더 오래된 건물로 판명되었으며 목조건물의 양식적 계통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사찰건축에 관한 연구는 유적소개와 자료를 정리하고 목조유구를 통해 목조건축양식을 설명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며 적어도 불교사와 더불어 고려시대 가람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문헌사료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탑파 및 와당

고려시대 탑파에 대한 조사는 60년대 한국일보사 주관으로 실시된 신라五岳三山調查와 각대학 박물관에서 행한 지표조사를 통해 상당한 양이 발견되게 되었다.

그런데 寺址에 관한 내용은 매우 드문 편이며 대부분의 연구가 미술사학계에서 다룬 석탑·부도·와당에 관한 것들로서 정영호의 고려석탑의 양식상의 특성(東洋學 第六輯, 1976)과 고려시대의 탑파—그 변천과 특징을 中心으로(월간 중앙 311, 1970.11)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부도에 관한 것은 이은창의 부도의 양식에 관한 고찰(白性郁박사 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1957)등을 꼽을 수 있다.

와당에 관해선 1964년 이래 국립박물관의 연차적인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청자 요지 발굴결과 청자숫막새, 암막새, 숫기와 등이 발견되었고 그와 유사한 규모의 청자 요지가 전북 부안에서 발견됨으로써 고려시대 건축에서 청자기와는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4) 주거지

고려시대 주거지에 관한 연구는 남한에 있어서도 발견된 주거유적이 거의 전무했던 관계로 주로 문헌에 기록에 의존하여 다루어 질 수 밖에 없었으며 주남칠은 한국주택건축에서 온돌의 유무, 입식과 좌식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평북 동창군 학성리와 신의주 위화도 상단리 등에서 고려시대주거지의 흔적이 발굴되었다고 조선고고학개요에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앞으로 고려시대 주거지 연구는 문헌연구와 유물분석을 서로 연관지어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5) 목조건축양식

지금까지 목조건축양식분류는 고려시대 후기 목조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심포, 다포로 구분되어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마치 고구려 벽화고분에 나타나는 목구조는 고려시대 목구조를 기점으로 할 때에는 포작을 한 건축이 아닌 것처럼 간주하게 되는 개념상의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12세기 이전의 목조건축을 주심포, 다포로 설명할 수 없는 공백기로 만들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동안 발굴된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의 공구류와 25史에 실린 중국측 문헌내용, 그리고 고구려고분벽화의 건물도, 안압지에서 발굴된 침차편, 석탑에 나타난 목구조형식, 각종 화엄경본

상도에 나타난 불전도의 사료적 가치를 망각케 하고 있다.

때문에 주심포, 다포의 개념설정은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포작 형식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포작의 위치구분만을 기준으로 포작방법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0. 한국건축사학의 흐름

지금까지 한국건축사학의 흐름을 살펴보면, 朝鮮王朝의 官撰史家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져 오던 모든 영조활동에 관한 諸史料들은 韓日合邦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技術史를 토대로 한 建築史觀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화석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때부터 韓國人에 의한 建築史의 敍述活動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 高裕燮에 의하여 美術史의 일부로 나타나기까지 한동안 공백기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때문에 이 기간동안 한국건축에 관한 기록은 자연 서구적 학문을 체득한 日本官學者들의 손에 의하여 조사되고 서술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樣相은 韓末期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건축사학사에는 커다란 불연속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史의 서술주체가 韓國人으로부터 日本官學者들로 바뀌어 갔다」고 하는 단순하고도 엄청난 변화로부터 기인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좀더 구체적을 부연한다면 1900년대부터 日本官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져 온 韓國建築史에 관한 일련의 조사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가 한국건축사학계에 미친 영향은 당시 日本에서 수용된 Rnake의 실증주의사관을 토대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근대적 방법론에서 한국건축사연구의 선례를 남겨 놓았으며 자칫하면 소홀히 소멸되어 없어질지도 모를 많은 유적, 유물을 조사하여 기록에 남겼다고 하는 점은 그들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의도·목적이 여하하였던 간에 자료로서의 부가적 가치를 남겨놓았다고 본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역사의 서술이 그 서술 주체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는 명백한 歷史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고 보아진다. 그 구체적인 예는 한국건축사의 서술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똑같은 古代史의 서술이라도 한국건축사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다룸에 있어서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關野貞의 연구와 高裕燮의 연구에 있어서 현격한 관점과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전자의 경우는 日本의 뿌리에서 한국건축사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비록 미술사의 일부로서 다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한국건축사를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해방이전의 한국건축사의 연구는 3가지의 문제로 축약되어 요약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우선 전통적인 技術史觀에 의한 修史의식이 연속적으로 한국건축사연구에 계승되어 가지 못한

점과 日本官學者들이 남긴 諸자료의 개개의 가치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분석검토와 비판이 요구된다고 보아지며 고유섭의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계승의 문제도 민족주의 사관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光復以後 史料조사의 추이는 적지않은 부분을 연구기관과 社會相의 변화에 따라 성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60년대 국립박물관의 형성과정속에 적지않은 민족주의적 배경이 깔려 있음과 70년대 문화재연구소와 각 대학 박물관의 활동의 배경에는 국토개발정책에 따른 문화재보호발굴이라는 時代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결과적으로 조사체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으나 시대별로 자료 분포의 변이를 통하여 시대적 관심사를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은 입장에서 자료의 양적변이를 기준으로 질적계기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대적 추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민족주의의 태동		해방이전 고적조사의 비판		
발아기	성장기			반추기
	형성기	모색기	반추기	
	1960	1970	1980	
· 전후피해복구	· 선사시대유적(청동기 특히 주거지)	· 대규모 지표조사	· 지표조사결과의 세부 검토	
· 해방이전의 연장	· 박물관의 해방이전 유물의 정리 · 인접연구단체 증가	· 고대이후 역사사적 발굴 · 문화재연구소	· 자료의 체계적 정리, 분류	

〈表〉자료조사 추이의 시대구분

이와같은 연구추이는 60년대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관한 발굴과 70년대사료의 전반적인 축적을 이루게 됨으로써 차츰 고대건축사에 대한 관심이 이전의 것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寺址에 대한 발굴은 이제까지 서술적일 수 밖에 없었던 고대건축사의 부분을 문제중심의 체계적 접근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城址의 경우 백제와 신라城址의 발굴은 당시 城邑의 형성적 차원에서 고찰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진다.

또한 이제까지 고대사중심의 발굴체계가 좀더 전문화·세분화가 되어질 필요가 크다고 보며, 자료조사에 있어서도 건축사학자의 참여와 주관이 더욱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Ⅲ. 韓國建築史學의 理論的 基礎

建築史연구는 史觀에 따라서 지엽적인 방법론의 차이가 다소 있을지 모르겠으나 建築史의 敘述은 史料의 수집·비판·종합이라고 하는 3가지 단계를 토대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3가지 작업 그자체가 建築史를 서술하는 기본적인 행위가 됨은 틀림없는 사실 이겠으나 이것이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광의적 견지에서 보면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이며 결코 그 자체로서만 建築史 敘述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證據物件인 諸史料에 입각해서 올바른 建築史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의 전체를 총괄하는 가치기준으로서 史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건축사학이 안고 있는 한가지 과제를 들어 본다면 實證史學的 입장과 樣式史的 접근방법에 대한 보다 명백한 이론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는 점이다.

1. 實證史學的 課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實證的이라는 말은 史料의 客觀的 취급, 즉 Ranke가 말했던 바와 같이 과거사실은 당시 있었던 그대로를 엄밀하게 재현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의 정확성과 정밀성의 추구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科學的 方法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科學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을 경험에 입각한 法則性과 豫則性을 찾는데 두고 있는데 反하여 Ranke는 개별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강조했으면서도 역사적 사실의 법칙성을 배격했으므로 프랑스의 생시몽(Saint Simon 1750~1825) 등이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계몽사상에 내포된 과학주의를 주장했던 實證主義(Positivism)와는 方法上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歷史解析의 문제에 있어선 Ranke 자신이 기계론적, 결정론적인 입장의 과학사관을 배격함으로써 서로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때문에 實證的이라는 말은 遺物史料과 文獻의 철저한 고증 즉 비판과정을 통한 과거사실의 엄밀한 규명이란 측면에 한하여 사용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같이 볼 때 우선 과거사실의 규명에 관한 대상영역을 사료의 유형별로 세분하여 보면 1. 文獻史料 2. 遺物·遺蹟史料 3. 文獻史料과 遺蹟·遺物史料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고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文獻史料研究의 諸問題

西歐에 있어서 古文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은 17세기부터였으며 이 시기에

즈음하여 朝鮮을 포함한 東洋文化圈에 있어서는 金石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金石文의 고증을 중심으로한 史學方法이 형성되어져 왔다.

이와같은 의식은 서구에 있어선 實證史學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어서도 朝鮮中期以後 實學派들을 中心으로 한 고증학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맥은 朝鮮社會가 붕괴하여 가면서 계승되지 못하고 韓日合邦이후 역사의 서술 주체가 日本人官學者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古文獻에 대한 정리는 이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建築史學的 견지에서 사실의 정리를 시도했던 사람은 關野貞이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과거사실이 지닌 의미의 재현을 시도했던 것은 藤島亥治郎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했던 史料는 대부분이 朝鮮時代 官私撰史家들에 의하여 정리된 通史의 체계의 文獻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던 만큼 이를 토대로 造營自體의 맥락(營造意味)을 실제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史料자체의 성격으로 봐도 기대하기 힘든 한정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이었다.

때문에 이들이 사용한 文獻史料의 이용은 과거사실을 時間이란 중축선상에서 배열하고 조영물의 개괄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자료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결과 建築史와 文化史의 차이를 애매하게 하고 말았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文獻史料에 관한 조사는 영조관계 고기록이 아닌 문화사적 가치가 큰 것이었으므로 부분별 사료인용에 그칠 수밖에 없는 매우 한정적인 것들이었으며 이것 자체도 총체적인 조사는 되지 못하고 朝鮮總督府와 京城帝大의 조사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사 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전문적인 영역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졌던 史料的 한계는 解放以後 한국건축사 연구에도 적지않은 답습이 이루어져 옴으로써 지나치게 사회적 배경이 강조된 文化史的인 建築史가 되었으며 실제로 營造行爲를 주관하는 匠人, 그리고 造營物의 기능 그리고 그것을 형성하게 되는 직접적인 社會經濟的인 동인에 대해선 크게 다루질 못하였다.

때문에 韓國建築史에 대한 認識의 깊이는 時代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피상적인 理解로 치우치게 되기 싫상이므로 결과적으로 문화사적 측면의 사료 이외의 건축사 관계 문헌자체에 대한 체계있는 정리와 가치규명의 작업이 오늘날 한국건축사학계가 당면한 본질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建築史자체의 古文獻이라고 볼 수 있는 營造關係記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가치규명에 중요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史料자체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史料利用 자체를 놓고 볼 때에도 史料에 대한 비판 검토 과정을 간과하고 지나친 감이 적지 않다. 특히 문헌의 본원성에 대한 검증은 시대구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사실 기록의 차용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역사연구의 선결작업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과제는 특히 古代建築史研究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실기록에 차용관계가 심한 中國

의 25史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고대건축상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나 사기와 관계하여 면밀하고
 조심스럽게 평가해 볼 필요성이 크다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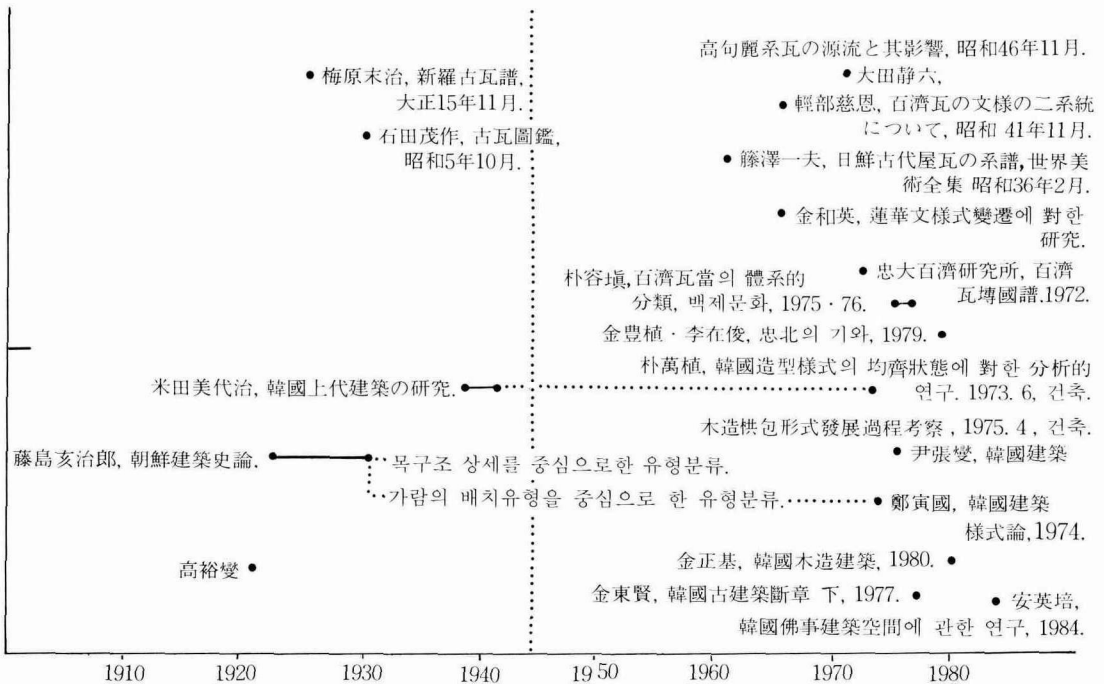
2. 遺物·遺蹟史料研究의 몇가지 問題

韓國建築史學에서 遺物·遺蹟史料의 실증성에 관한 연구의 한 방법으로써 遺物·遺蹟史料에
 대한 形式學的 접근방법은 研究方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韓國建築史學이 처음에 日本官學者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후 해방과 더불어 韓國建
 築史研究가 韓國學者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적지않은 부분이 日本學者들
 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연구의 진전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사용했
 던 方法에 대한 정확한 소개나 理論的 검토가 없었으므로 韓國建築史學의 體系的 발전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선 이와같은 작업은 불가피한 입장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들 史料들은 樣式史研究의 기초가 되고 있는 形式分類의 근간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접근방법과 분류기준에 대해 보다 명백히 이해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건축사 연구를 위해 건축유물과 유적에 관심을 처음으로 갖기 시작하게 된 것은 1902년
 (明治35年) 關野貞이 古蹟調査作業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때 주로 建築史敘述에 이용된 遺物遺蹟史料의 종류를 크게 분류해 보면 1. 瓦·磚, 2. 營造物
 및 石塔, 3. 伽藍의 배치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집된 많은 史料들 중에서 체계와 형식에 관한 분류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은 營造物의 形式에 관한 분류 작업이었으며 해방이전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藤島亥治郎이 朝鮮建築史論에서 탑과의 수와 입지조건에 의한 平面배치 유형을 중심으로 한 朝鮮伽藍配置系統圖와 斗栱의 형태와 架構형식을 중심으로 분류한 近世朝鮮建築樣式系統圖를 들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연구한 바 있는 高裕燮先生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와같은 배치형식과 목조상세를 기준으로 한 분류작업은 解放以後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藤島亥治郎에 의하여 시도된 平面配置類型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연구는 故鄭寅國教授에 의하여 1970년대 초반에 그의 著書 韓國建築樣式論에서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간과 軸이론을 근거로 세부적인 이론적 검토가 시도된 것은 후일 安英培教授에 의하여 1980년대 중반에 韓國 佛寺의 建築空間에 관한 研究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木造상세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 分類는 藤島亥治郎에 의하여 2가지 유형 즉 第一系…浮石寺系…天竺樣系…亞麻組式, 第二系…釋王寺系…唐樣系…詰組式으로 분류 되었고 이들 두계통의 양식이 朝鮮초기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끼쳐 변형발전된 것으로 설명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역시 斗栱의 幅과 丈의 비례를 계산하여 量的인 측면에서 時代 변화에 따른 성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解放以後 이 문제에 관해서 藤島亥治郎이 한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다룬 것은 故鄭寅國教授에 의하여 韓國建築樣式論에서 있으며 본원적인 관점에서 尹張燮教授에 의하여 1977년 4월, 건축학회지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韓國建築木造栱包形式發展過程 考察속에서 中國漢代와 六朝時代 그리고 古代 韓國과 日本 斗栱의 맥락이 다루어진 바 있으며, 총체적인 정리는 한국건축사에 제시되어졌었다.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유물해체 보수결과를 토대로 연구된 것은 1960년 이후 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에서 봉직했던 金正基博士와 金東賢·申榮勳에 의하여 조사정리되어 相關학회지와 잡지 그리고 韓國木造建築(金正基, 1980), 韓國古建築斷章下(金東賢 1977)에서 이제까지 조사된 자료가 詳論되어진 바 있다.

이와같은 연구의 맥락은 모두 遺物의 類型을 분류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그 출발점이 모두 실증적 방법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아니라 韓國建築史學에 있어서 樣式史學은 이와같은 遺物의 形態·形式分類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져 왔으므로 이 문제는 建築史學의 理論의 토대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형태분류 자체 목적은 형태의 유사성을 분류기준으로 하여 공통성을 많이 지닌 유물을 표준유물로 지정하게 됨으로써 時代編年을 비롯하여 諸樣式의 변천과정등을 객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 樣式史的 課題

樣式史 研究의 出發은 形式分類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形式이란 遺物및 遺蹟 등이 서로 共有하는 形態에 의하여 그밖에 다른 것과 구분되는 特定한 相關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경우에 따라선 이들이 보여 주는 一聯의 遺構들의 공통성이라고 정의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와같이 볼 때 形式의 분류에 대한 歷史的 意味는 역사자체가 時間的·空間的 측면에서 事象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연 대상되게 되는 것은 이들 유물이 지닌 形態上的의 특정한 연관성을 共時·通時的 입장에서 어떻게 의미를 함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게 되므로 관건이 되어지는 것은 유물·유적사료가 지닌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동시에 이것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나타난 遺構의 密集狀態와 정도에 관한 分析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많을수록 보편성은 큰 것이다라고 하는 生物의 進化에서 適者生存이 있듯이 遺構의 分布가 多量일 경우 建築의 遺構 역시 進化論的인 形態學的 配列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유물이 단순한 형태→복잡한 형태로 변화해 가는 것이 文明化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보편성있는 사실이라고 간주하게 됨으로서 유물·유적 분류에 있어서 하나의 方向性을 전제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은 보편적 형식으로서 공통성을 지닌 유물을 찾게 되며 동시에 이것은 표준遺構의 추출에 의하여 시대편년과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方向性은 당위성을 지닌 절대적인 것은 예외적 사실이 많음을 전제로 한 하나의 역사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近代建築史의 한 단면을 생각해 볼 때 건축은 분명히 바로크·로코코적인 복잡한 Design 유형으로 부터 Less is more라고 하는 단순성의 추구 Pattern으로 歷史가 변모해왔기 때문에 먼훗날 건축사가들에 의한 이 시점의 유물 유적 분류는 위 가설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반면 Less is more가 차츰 Post modern, Late modern의 時代思潮의 영향속에서 변질되어 온 同時代史의 한 단면을 볼 때 이와 같은 개념의 정리에는 예외적 사실이 뒤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형태를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지닌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능을 다루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歷史의 현장을 살펴볼 때 일반적인 遺構의 分布가 항상 기대하는 바와 같이 多量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小數에 불과하거나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이 遺構들을 과연 標準遺構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신뢰도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歷史家들을 그동안 발견된 遺構자체를 입증할 만한 연관사료의 유무 즉 文獻 記錄, 銘文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또다른 遺構의 존재여부 등에 관하여 적지않은 관심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유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기도 하는 定性的인 分析에 의존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一節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韓國建築史의 遺構形態分類작업에 관하여 몇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를 든다면 木造架構形式系統에 대한 諸研究와 寺刹配置系統圖에 관한

연구를 우선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때 이들의 理論的 土臺가 되고있는 形態分類 기준과 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시대구분 내용이 관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전자의 경우에 있어선 木造의 형태 분류 즉 柱心包와 多包形式을 기준으로 이들이 형성된 시기에 준하여 時代編年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루어진 결과가 과연 한국건축사의 변화과정을 효율적인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검토과제가 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지금까지 탐과 금당의 관계를 중심으로 寺刹配置類型에 관한 系列 분류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과연 단탑과 쌍탑의 관계 산지가람과 평지가람의 관계를 그대로 문헌사료의 침착이 없이 한국 寺刹건축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通時的 分析 자료로 사용해도 무방하리 만큼 그 내용에 명확한 실증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는 적지않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결과를 定型, 規則性을 갖는 類型화된 事象으로서 볼 수 있을 만큼 즉 어떤 解析을 가할 수 있는 역사 科學的 意味를 지닌 것인가 하는 점 등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에서 제기된 제반 기준을 通時的인 측면에서 어떤 요인을 定型→典型, 또는 推移를 기대해 볼 수 있는 前提, 基準, 節次와 編年方法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거와 검토가 선행되어 이루어진 작업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선 아직 예외적 사실을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검토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 보고자 한다.

1) 木造建築樣式系統分類기준에 관한 검토

韓國建築樣式史연구에 있어서 木造架構에 대한 形式分類方法은 包作을 배열하는 유형에 따라 柱心包系와 多包系로 크게 대별되어져 왔으며 이 분류 韓國木造建築形式을 정리하고 체계화함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木構造에 대한 理解의 기준척도가 되어 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가치를 의심할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준을 적용해 온 사례들을 살펴 볼 때 그 기준과 내용설명에 애매한 점이 사실상 없지 않으므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두 용어는 傳來해 온 古法式用語가 아닌 서구적 방법에 의한 한국건축사가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후대에 편의상 붙여진 學名이기 때문이다.

우선 위에서 정의 된대로 包作의 내용을 살펴 보면 柱心包와 多包作의 意味는 包의 놓인 위치를 木造形式分類의 大前提로 삼음으로써 木造의 外形분류를 쉽게 나눌 수 있게 하는 커다란 공헌을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세분적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한과 분류 그리고 전제가 생략된 채 사용되어져 옴으로써 초심자의 연구에 개념상의 혼돈과 동시에 架構造에 대한 이해에 다소의 무리가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包作의 자체의 형식과 내용을 양식개념인 柱心包·多包와 상관하여 다룬 바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時代區分에 있어서 삼국시대와 高麗時代의 그것이 애매하게 포괄적인 내용면으로 다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아무런 전제없이 전자는 枋栱類로 후자는 栱包로 分類됨으로써 枋栱이 곧 栱包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사용되어짐으로써 자칫하면 역사의 단층을 느끼게 하는

점들이 없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이와같은 현상을 包作과 包의 위치에 관한 구체적인 詳論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모순이라 생각되며 이점들에 관한 한 몇가지 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관련이 되는 것은 다소 진부한 일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包作의 意味가 어떠한 어원을 갖고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包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최고의 문헌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營造法式이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營造法式 卷第一 鋪作條를 보면 아래와 같다.

……今以料栱層數相疊出跳多寡次序謂之鋪作

이와같이 볼 때 鋪作은 料栱을 서로 중첩시켜서 여러켜 쌓아 올라 갈 때 출목의 많고 적음을 次序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자연 對象이 되는 것은 料栱이라고 생각되며 飛昂爵頭가 문제 가 된다.

여기서 料栱이란 柱頭위에 첨차와 소로로 짜올려진 조적물을 말하고 料는 柱頭나 小累를 가리 키고 栱은 簷遮를 말한다. 때문에 營造法式 卷第四에서는 料栱을 짜올려서 包를 형성하여 가는 과정을 總鋪作次序로 다루면서 위에서 제시된 多包系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凡於闌額上坐櫨料安鋪作者謂之補間鋪作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창방위에 주두를 놓고 포를 짜올리는 것을 補間鋪作이라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해 놓고 볼 때 包作을 料栱을 次序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한 한 지금까지 學界에서 언급된 포작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애매한 구석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실제로 遺物의 分類에서 包作은 주로 高麗時代의 것부터 다루 어짐으로써 매우 제한된 의미로 부각되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高麗 그것과 형식상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高句麗時代의 그것은 料栱類로 분류되고 包作의 내용으로 이해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때문에 柱心包라고 料栱類가 柱上에만 올라 앉은 것을 지칭한다고 학계에서 정의하고 있으면서 도 高句麗의 그것에 나타난 내용을 柱心包라면 말하지 않게 됨으로써 時代編年上의 모호성을 유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多包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補間包의 유무여부에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것과 人字栱과 대공이 설치된 사례와의 상호연관성은 사실상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이와같은 사실은 자칫하면 한국 木造建築의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서 古代建築史에 대한 소극적 인 이해 즉 고대 양식화된 건물의 실제 가능성에 대한 논리적 추구의 한계와 歷史의 단절을 가져

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여 金東賢이 우리나라의 栱包資料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高句麗 壁畫古墳에 나타난 것을 가장 이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栱包形式으로 해석하여 柱頭式 二斗式 三斗式 重複三斗式 無斗翼工式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栱包의 개념을 고대사까지 확대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삼국시대 벽화고분의 내용이 비록 평면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料栱類를 그린 包作을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부분이 柱上包作의 것이 많았던 점으로 보아 柱心包形式의 상한선을 高句麗때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객관성이 큰 학설로 인정해야 하며 삼국시대 나름의 특유한 시대성을 지닌 포작유형으로 이해될 所以가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包作의 문제는 高麗時代 包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볼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의 것과 연결시켜서 변천과정 나름의 時代性을 양식사의 차원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料栱의 의미는 기둥을 세운 위에도 보와 도리를 얹게 되고 보와 기둥사이에 하중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서 一種의 過渡的인 構造部分으로 升形 또는 斗形의 方形인 木塊와 肘形의 橫木을 중첩하여 놓아가지고 기둥과 벽으로부터 外部로 점차 伸張突出시켜서 보와 도리에서 傳達되는 지붕의 하중을 바치도록 만드는 동시에 지붕에 첨아가 깊게 많이 突出될 수 있는 특수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본다면 料栱의 구조적인 기능은 우선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무리없이 전달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포작의 형태 즉 두공의 형식은 지붕과 기둥이 상호결합하게 되는 위치에 따라 그 내용이 사실상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지붕의 내림마루가 걸치게 되는 귀주에 있어서의 두공의 결합형태와 일반적으로 지붕의 하중이 外木道里로 平柱에 전달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것과 퇴보 등을 통하여 則柱에 분배된 하중이 전달되는 경우에 있어서 包作의 형식이 서로 내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사실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柱上包라도 위치에 따라 형식상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柱心包란 말은 木造建築의 가장 裝飾的 요소의 核이 되는 料栱이 기둥머리 위에만 놓여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柱心包는 곧 柱上包作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柱心包에는 형식과 내용에 따라 3가지 유형 즉 平柱上包作, 則柱上包作, 귀柱上包作이 있게 되는데 이들은 비록 包의 기본 형식에 있어서 同一하다 할지라도 包作에 있어서는 역할에 따라 서로 형태상의 차이가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柱心包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平柱上包作을 기준으로 소로와 짐차, 주두를 대상으로 그 모양새의 변화를 중심으로 따져 왔으므로 이와같은 점이 도외시되어 왔고, 그 결과 木構造에 있어서 처마의 出檐을 극적으로 이룩하여가는 제공에 대한 배려와 출침, 그리고 출목수에 대한 고려가 체계적으로 정의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귀柱上包作과 제공과 퇴보가 결합하여 包 자체가 柱上에 단순하게 얹혀지는 것이 아니라 架構造의 일부로 편입되어

가는 則柱上包作에 대한 고려 역시 木構造形式分類에서 사실상 논의로 제외되어 왔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결국 이와같은 平柱上包作을 중심으로 성립된 柱心包 개념은 多包의 형식개념을 내용이 있었는데 애매한 형태 분류라는 인상을 짙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多包란 두공이 기둥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사이에도 1구 또는 그 이상 배치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多包란 柱心包+包間包라는 의미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것은 平柱上包+補間包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多包에 있어서도 則柱上包와 귀柱上包의 내용은 제외되게 된다. 그러나 막상 평면구성을 보면 경우에 따라 平柱에 퇴보가 걸려 則柱로 처리됨으로써 包作이 平柱上의 것이 아니라 則柱上包作의 형태로 즉 제공이 퇴보머리로 대체되는 경우가 浮石寺 無量壽殿이나 鳳停寺 極樂殿등과 같은 고려말기 중심포 건물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것을 平柱의 것과 同一시하여 설명함으로써 비교대상의 차이가 전제되지 못하고 무시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포작의 내용을 위치에 따라 세부하여 그 형식과 평면구성과 결부시켜 보질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柱心包건물에 있어서도 삼국시대의 것에 則柱上包의 유무는 사실상 구체적인 사료가 없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하더라도 平面연구에 있어서 실존가능성이 전혀 배제되어 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平柱包에 의한 분류는 형태를 살펴보기에는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으나 形式分類를 입체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못하고 단순하게 평면적인 인식으로 귀납하게 되는 모순을 수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料栱의 구조적 기능을 包作자체에서만 한정하여 이해하게 되는 즉 가구조와의 관계를 도외시하게 되는 한계성을 수반하게 됨으로써 많은 이해의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상의 혼돈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柱心包란 柱上包作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이것을 다시 3가지(平柱·귀柱·則柱)로 구분해서 그 형식을 살펴 봐야 하며 多包란 柱心包+補間包로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포작은 架構造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중심포와 다포의 차이는 포작의 형태상, 구법상 차이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되며, 柱心包와 柱上包는 용어상의 차이를 전제하고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平面配置類型分類기준에 관한 검토

韓國建築史에 관한 研究中에서 平面配置類型을 中心으로 分類가 처음 시도되었던 것은 佛敎寺刹이었으며, 이것을 시도했던 사람은 日本官學者였던 藤島亥治郎이었다. 해방이후에 있어서는 故鄭寅國教授와 安英培教授에 의하여 깊이있게 다루어졌다.

여기서 다루어진 寺刹類型分類의 諸基準과 그 내용을 다룬 學者別로 特性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 점에 대하여 安英培教授는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원칙을 제시하였다.

“위와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藤島氏의 案을 살펴보면, 塔의 數에 의한 구분에 문제점이 있고 類型에 數도 적은듯 하지만 실제로는 지형에 따라 또 구분되므로 그 수가 너무 많다. 鄭寅國氏의 案은 藤島의 案과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여기서 軸線의 性質에 따른 分類가 추가된 점에 특색이

關聯學者	分類基準	內容 및 관계 文獻					
藤島亥治郎	1. 塔의 數	一塔, 二塔, 自由式					
鄭寅國	1. 塔의 數 2. 立地의 條件 3. 軸線의 性質	一塔, 二塔, 無塔 平地, 丘陵, 山地 中心軸, 直交, 自由型					
安英培	1. 空間構成의 變遷과정(時代區分) 2. 塔의 數 3. 空間의 軸形式	<table border="0"> <tr> <td rowspan="2">} 類型分類</td> <td>塔中心(前期), 建物中心(後期)</td> </tr> <tr> <td>塔求心軸, 1塔中軸, 2塔中軸, 1塔交軸型</td> </tr> <tr> <td></td> <td>後期中軸, 後期交軸, 複合軸型 ←</td> </tr> </table>	} 類型分類	塔中心(前期), 建物中心(後期)	塔求心軸, 1塔中軸, 2塔中軸, 1塔交軸型		後期中軸, 後期交軸, 複合軸型 ←
} 類型分類	塔中心(前期), 建物中心(後期)						
	塔求心軸, 1塔中軸, 2塔中軸, 1塔交軸型						
	後期中軸, 後期交軸, 複合軸型 ←						
文明大	塔院과 禮拜院, 僧院의 결합상태	禮拜院은 金堂과 塔의 數로					

있다. 그러나...藤島の 案처럼 自由式이라고 하는 애매한 用語를 그대로 사용하였고...또한 類型사이에 時代的인 聯關性이 약하며 類型도 너무 많다. 끝으로 太田博太郎의 견해는 공간구성형식을 종교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韓國後期佛寺建築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고려 이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佛寺建築에는 廻廊이 없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前期와 後期の 구분을 塔이 空間構成의 中心이었던 때와 建物이 中心이었던 때를 중심으로 크게 양분한 바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불대상을 중심으로 사리를 봉안한 塔과 佛像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分類는 形態의 類型上 두드러진 特色을 중심으로 韓國의 寺刹을 나뉘므로 分類하였으며 체계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史學史上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건축사의 연구에 있어 形式分類를 해야하는 기본적인 意味가 단순 유적이 形態를 분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建築史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理解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작업을 통한 時代編年의 정확성 여부는 이 분류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은 諸學者들이 제안한 分類基準은 時代編年의 標準史料들이 지닌 特性을 제안한 것이라 볼 수 있게 되므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과연 塔의 數와 立地상태가 표준사료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초기 불교의 성립과정에서 羅代를 거쳐 高麗에 이르기까지 설명된 내용과 寺刹建築形式이 지닌 社會相의 變遷과정, 寺刹에 요구되어진 사회적으로 기능과 종파의 형성과정이 과연 이 기준과 부합되어 설명되어질 수 있겠는가.

2. 塔中心의 예불공간이 前期의 特色이라면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浮屠가 AD 9세기 이후에 寺址에 갑자기 많이 나타난 동기를 불전중심의 그것과 어떻게 연관지워 설명할 수 있겠는가.

3. 羅末麗初에 寺刹이 創建되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私家들이 寺刹로 기능이 전도되는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寺刹이 形式分類에서 배제해도 관계없겠는가 하는 점들이다.

IV. 結 論

부족한 필력으로 지난 30여년간의 학사를 정리한다고 하는 작업은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고 학문의 부족함을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고백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런 게도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커다란 수확이 있었다면, 건축사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과 판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내용을 크게 요약해 보면 대략 3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건축역사학에 관한 인식과 교육의 문제로서 건축사에 관한 이해를 분석과 해석중심의 사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을 남기는 작업, 즉 분석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사관입장 역시 역사학의 한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며 건축역사교육에 있어서는 개설서를 몇권 읽고 이해하는 정도의 아마추어적인 상식을 전달하는 피상적 이해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과 의미를 밝혀주는 전문성을 크게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로는 건축사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과거사실의 복원에 있다고 할 때 역사적 사실이 실증적 단계는 어떠한 사관과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학적 자세라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건축사학은 건축작품에 건축학적 이해 이외에도 사학적 방법에 관한 전문적인 특수한 이해 즉 사료를 다루고 정리하는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한국 건축사의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 한국건축을 만들어 온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가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시대적 배경 설명과 시대정신에 매료된 나머지 모든 것을 유교나 불교에 미워버리고 풍토적인 요소를 도외시하게 되거나 왕조의 치적이나 소개하고 마는 정도에 그침으로써 한국건축사의 구성주체가 민족을 배경으로 한 작가와 작품의 변천사라는 인식이 매우 부족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로는 건축역사를 보는 관점에 관한 것으로 사관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사학사를 통해 볼때 거론되어지는 내용은 2가지 측면이 있다. 그중 하나는 일본학자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한 평가라 할 수 있으며 광복이후 이루어진 제반연구 속에서 이들의 연구 업적이 계승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분명히 명시하는 학문적 도덕성이라 생각된다.

또하나의 사실은 실증사학적 과제와 양식사에 관한 과제를 들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지적 되게 되는 사실은 통사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건축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삼국시대 사찰이나, 조선후기건물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밖의 시대에 관한 연구 특히 원삼국시대나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역사적 상황설명 정도로 그치는 형편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역사인식인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대별 과제를 생각해 보면 우선 신석기시대와 청동기 특히 원삼국시대에 해당되는 건축사의 서술은 유적과 유물, 그리고 이 시기 문헌사료와의 상관성 속에서 재조명되어

저야 할 필요성이 어느 시대 건축사 연구 못지 않게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사료의 부족과 지역성 때문에 한국건축사 서술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발해시대의 건축사 역시 고구려문화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일신라시대의 그것과 동일축선상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고려시대 건축사연구로서 우선 문헌사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를 통한 사실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시대사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간적 범위설정이 보통 수십수백년을 예사로 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구대상시기의 지나친 확대가 사실 규명에 지나친 비약과 생략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든 입장에 있다.

후자의 양식사문제에 있어선 그 이론적 토대가 서구의 그것과 같이 필요와 모순을 지양하는 과정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차용된 것이므로 이론의 성립범위와 가설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이해는 매우 절실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양식사의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형식과 내용에 관한 규명이라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한국건축사양식사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온 목조형식과 사료배치형식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목조형식에 관한 연구는 표준사료에 관한 지나친 고정관념으로 포작에 관한 이해가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으로 되어 짐으로써 고구려시대 분묘에 나오는 건물도의 포작내용이 지닌 학술적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목조건축양식의 변천과정이 고려중기 이후부터 다루어지게 됨으로써 그 이전의 건축양식에 대해선 석탑이나 청동탑상, 화엄경변상도 등에 나타나 있는 간접사료의 가치가 퇴색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통적 고찰이 미비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목조형식연구는 대부분의 관심이 포작의 형태와 위치분류에 초점이 모아진 결과 보와 기둥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내부공간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관심이 부족함으로써 건물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일천했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람배치의 형식분류는 堂塔관계와 가람의 立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그 분류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시기가 통일신라 초기에 국한되어 짐으로써 서민이나 귀족의 저택을 가람화했던 현상이 심했던 고려나 사찰의 증축이 많았던 조선시대 가람의 형식분류에는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탑파에 관한 연구를 생각해 볼 때 건축사 연구의 중요한 관심거리는 석탑보다도, 불전의 한 유형을 같은 목조탑파에 관한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